

안녕하십니까?

2007년 정해년(丁亥年)도 이제 한달 남짓한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은 다른 그 어느 때 보다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세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HIRA 정책동향』 발간을 준비하던 몇 달은 어떻게 하면 기존의 동향지와의 차별성을 가지면서 충실한 내용으로 채울지를 고민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세웠던 좋은 취지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욱 노력하는 『HIRA 정책동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호의 '정책과 쟁점'의 주제는 내년에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 수가'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노인의료비와 노인 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개인이나 가정에만 맡기기 보다는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호의 주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종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 사무관,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 그리고 박인수 노인병원협의회 회장의 글을 실었습니다. 우리가 마련한 장(場)이 각 계의 시각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데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IRA 연구'에는 '정책과 쟁점'의 주제와 관련하여 심평원에서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개정방안'을 다루었습니다. 한정된 지면이라 연구내용의 일부만을 실었습니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수가정책에 대해 독자들께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슈브리핑'에 '심평원 직원이 선정한 2007년 보건 10대 뉴스'를 실었습니다. 한 해 동안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일어난 일들은 같지만 보는 이에 따라 기억에 남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점과 비교하며 읽으시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동향'에는 '정책과 쟁점'에서 다룬 주제를 중심으로 한 각국의 동향을 실었으며, '진료경향분석'에서는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내시경 의료장비의 대수와 이에 따른 내시경 검사비용증가추이를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 난에는 '행사 게시판'과 함께 고객 설문조사를 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가 더 나은 동향지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장

정 형 선